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위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견 표출
여당 의원 "국토부·기재부 반대"
"261명 공동발의했는데... 황당"
시, 대구와 공조 연내 통과 노력
홍준표 "본인 발의, 본인이 반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 손을 잡고 여야 국회의원에 호소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어차구니 없고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연내 통과를
위해 공동대응을 통한 의원 설득에 나
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호남 상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

제를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
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에 달빛철도 특
별법이 상정됐다. 달빛철도는 6개 광역
시(광주·전남·전북·대구·경남·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연장 198.9km다. 특별법에는 예비타
당성조사와 공청회 등을 면제하는 내
용이 담겼다.

특별법 발의는 역대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했으며
특히 여야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보다 동·서간 지역 화합이 중
요하다'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을 정
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
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입
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을
들어 특

별법 제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관련 부
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달
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여야는 오는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
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고 임시국회
가 열리더라도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연내 제정은 사실
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지역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
배적이다.

지역 정관계는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할 것이란 점은 예측하지 못했
다"면서 "알려지기로는 여당의 반
대가 있었다

고 하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
원들이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돌
고 있다. 이들만이라도 찾아내서 지
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분
통을 터트렸다.

다른 정관계자도 "공청회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하라는 것은
지방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지 말라
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속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하는 것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준
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
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
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
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교통소위
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안 내용을 알고 법
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
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
선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
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질타
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교통소위 전
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를 하
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공조를 더
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시는 국회 본회의 및 임시회를
앞두고 대구는 중앙정부, 여당을
담당하고 광주는 야당을 담당하
던 공조 방식을 공동 대응 형태로
바꾸고 특별법 연내 통과에 집
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김석용 교통국장은 "아
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
사안에 대해 대구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대응방법도 다양하
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병기 기자 byeongha.no@jnilbo.com

진도에 재난안전체험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해수부, 오늘 남동리서 개관
'세월호 특별법' 270억 투입

진도에 해양·재난안전 전문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7일 진도에서 안전
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
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
관'이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 세월호 참
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부터 국비 270억원을 투
입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 진도
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
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

박탈출 △바다생존법(엎드려 뜨기 등)
△익수자 구조 △선박대피 등 다
양한 해양안전 체험장이 있다. 2
층에는 △소화기 △응급처치 △지
진재난 △풍수해재난 등 재난안전
체험장과 해양 관련 직업 체험관
이 있다. 야외에는 세월호 참사 추
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마련
됐다. 또 국민해양안전관 바로 앞
에 청소년 활동 및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도 함께 운영할 계
획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이달 말까지 시
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
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해양
안전관을 통해 실제로 바다에서 꼭
필요한 해양안전 수칙들을 몸소 배
우며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
부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이 원활하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광주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23 광주광역시의회 선플우수의원상 시상

2023년 12월 6일 15시30분 장소 녹야원1층대회의실 주최 전남일보사·호남미래포럼·선플재단 주관 광주선플교사협의회·청소년SNS기자단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들 2023년도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김나윤·신수정·임미란 의원과 이동배 정광고 교장, 교사, 학생들과 고촌 선플협의회 서부권지부장 등이 6일 광주 정광고등학교 녹야원 대회의실에서 2023 광주시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을 갖고 존중과 배려의 선플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선플운동은 전남일보와 (사)호남미래포럼·(재)선플재단이 주최했다. > 관련기사 5면 김양배 기자



전라남도



생명영광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구청년정책관실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1401호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전남귀농산어촌 누리집 바로가기



전남귀농산어촌 카카오톡 상담하기



귀농TIME 유튜브 바로가기